

한국 대학의 국제화



서 거 석 | 전북대학교 총장

서거석

일본 주오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전북대학교 교수, 한국 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 소년법학회 회장,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국립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전북대학교 제 15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소년법』, 『기술과 법』, 『생활속의 법』, 『경제범죄의 개념에 관한 연구』,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외 다수가 있다.

“○○○ 프로젝트, 반드시 세계 100대 글로벌 대학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내 유수의 대학들이 대학마다 나름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모양이다.

실제로 한국 대학의 경쟁력은 세계 수준에 한참 뒤져 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미국의 시사잡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100대 대학 순위에 국내 대학은 하나도 들지 못했으며, 영국의 『더 타임즈』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세계 대학 평가 순위에서는 서울대학교만이 유일하게 100위권 안에 진입한 것이 고작이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에서 한국의 대학은 경제사회요구 부합도에서 조사 대상 61개국 중 5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당시 국가경쟁력이 32위였음을 감안하면 대학경쟁력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셈이었다.

I. 세계 명문 척도는 ‘글로벌 스탠다드’

그렇다면 왜 한국의 대학들이 세계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제대로 힘 한번 쓰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국내의 대학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세계 명문대학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대학들조차도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교수를 뽑기 위해 미국 주립대학 수준의 자격요건을 제시한다든지 세계 최고의 교수라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스카우트하고자 한다. 호봉제 임금을 연봉제로 바꾸고 연구 능력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젊은 교수를 대거 채용하기도 했다. 채용 후에도 연구 성과에 따라 성과급의 차이를 크게 두어 성과가 미흡한 교수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기도 한다.

학생 역시 자국 내 우수 인재의 확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인재를 유치하는 데도 많은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능력우선주의 원칙을 강조, 국경을 초월해 글로벌 인재의 육성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베이징대학교, 도쿄대학교와 더불어 아시아 3대 명문으로 꼽히는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는 전체 교수 1,700여 명 중 60%가 세계 명문대학 출신의 외국인 교수이며 대학원생도 50%가 외국 의 우수 인재다. 학부생 역시 20% 이상이 유학생이다. NUS는 또 미국 캘리포니아와 필라델피아, 중국, 스웨덴, 인도 등 세계 곳곳에 5개의 해외 캠퍼스를 두어 글로벌 리더를 생산해내는 ‘글로벌 지식 기업’을 향해 가고 있다.

이 대학은 지난해 『타임즈』의 세계 대학 평가에서 19위에 랭크됐다. 특히 공학 분야는 8위, 의학 분야는 9위, 사회과학 분야는 11위에 오르는 등 몇몇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다.

Ⅱ. 갈 길 먼 한국 대학의 국제화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재를 국가의 미래다. 인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된다. 때문에 세계의 명문대학은 21세기형 글로벌 인재를 찾는 데 막대한 노력과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이제는 유능한 외국인 교수진과 학생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대학경쟁력의 기준이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국제화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 한국을 대표한다는 서울대학교의 올 초 외국인 교수 수는 전체 교수의 0.58%인 10명에 불과하고 외국인 학생 비율은 3.8%밖에 되지 않았다. 영어강좌 비율도 5%가 채 안 된다. 영어강의 수를 대폭 늘려 10%선까지 올렸지만 외국 명문대와는 비교 상대도 되지 않는다. 서울대학교가 이렇진대 국내 전체 대학의 국제화 수준은 더욱 초라하다. 지난 2005년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0.2%로 OECD 국가 평균 6.4%보다 훨씬 낮다. 한국을 방문한 영국의 『더 타임즈』의 편집자 역시 한국의 대학이 세계에서 순위를 높이려면 국제화지수를 높이라고 조언했다.

Ⅲ. 장기적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국제화를

뒤늦게나마 한국 대학도 ‘국제화’를 화두로 삼고 글로벌 리더의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외 대학과의 공동 연구뿐만 아니라 인적교류 등을 역설하며 그에 따른 실천방안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영어강의를 확대하고 노벨수상자 등 석학들을 교수로 채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구호성이나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한국의 대학들은 장기적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국제화만이 심각한 대학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학문 특성에 맞는 원어강의 확충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시스템의 체계화는 기본이며 외국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숙사나 교육 커리큘럼 개선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또한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 글로벌 감각을 쌓게 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국제화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학생·교수들을 국내로 유도하는 인바운드(inbound) 국제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무분별한 국제교류협정이 아닌 공동학위제 운영 등의 실질적인 협정을 맺어야 하며 스타교수 초빙 또한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학들은 또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혁신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 도입과 함께 외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교육 비즈니스도 전개해야 하며 다국적 캠퍼스 구축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시점이다. 정부도 각 대학들의 국제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내 대학끼리 ‘좋은 대학’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NUS의 ‘대학은 곧 글로벌 지식기업’이라는 인식을 위기의 한국 대학들은 가슴 깊이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